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도시개발과	담 당 자	• 신도시팀장      정 현 ☎440-3321 • 담당자          박주열 ☎440-3323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6월 2일 12: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계양지구, 3기 신도시 최초 지구계획 승인

- 17,000호 주택 공급 , 금년 7월 1,100호 사전청약 공급 -
- 판교테크노밸리의 1.7배 일자리 공간 확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대표 공약사항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최초로 6월 3일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등 타 지역 3기 신도시와 함께 '19년 10월 15일에 지구 지정됐으나, 인천시 주관 TF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MP회의 등을 통해 인천시의 의견을 지구계획(안)에 반영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시에서는 금번 지구계획 승인을 통해 주거용지는 약 25%, 지구 전체면적 대비 공원녹지는 27%(여의도공원의 4배), 자족용지는 22%(판교테크노밸리 1.7배), 기타 공공시설용지 24%를 확보해 쾌적한 정주환경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구현을 위한 직주일체형 자족도시 및 미래세대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주거와 함께 일자리 공간인 자족용지에 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인천 D.N.A 혁신밸리(송도~제물포~계양~마곡)와 상암DMC, 마곡M밸리 등 첨단산업지역과 연계를 통한 인천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은 총 약 1만7천호로 전체 주택수의 35%인 약 6천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며, 공공분양주택은 약 2천8백호를 계획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입주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39호선(별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을 통해 충분한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변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교통수단인 S-BRT를 구축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IC신설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하는 인천계양지구는 4가지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①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도시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 실현하고자 도보로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선형공원(일명 ‘계양벼리’)을 조성해 공동주택, 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계획했으며,

② 계양벼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해 아이와 부모의 맞춤형 돌봄교육도시로 계획했다.

③ MZ세대들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일터에 일상생활 공간, 체험성장과 교류소통의 공간 등을 계획해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 혁신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④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관리체계 구축과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미래지향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전청약 대상 공동주택은 2개 단지 1,100호이며, 실시설계,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25년 입주가 되도록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적극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25년 하반기 주민 최초 입주를 위해 '23년 공동주택 착공 및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인천계양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첨단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붙임> 조감도

<별첨> 위치도 및 사업개요, 주택공급 및 사전청약 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